

4.5 강원도, 2023년 1~2월 방문객 전년 대비 10% 증가

-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으로 국내외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2023년 1~2월 강원도 방문객*(2,300만명)은 전년동기(2,100만명) 대비 10% 증가하였으며, 외국인 방문객(2.8만여 명)도 407% 증가

* 한국관광 데이터랩(한국관광공사) 이동통신 기반 빅데이터 자료 기준

- 도내 겨울축제(화천 산천어 축제, 평창 송어축제 등), 강원 스노우 페스타, 외국인 관광객 대상 투어(스노우 G-셔틀*) 등이 도내 관광 수요를 견인

* 수도권과 강원도 겨울 축제 시군을 연결하는 관광상품

- 강원도는 앞으로도 봄 축제, 여행가는 달(6월), 위케이션 특화상품 등을 운영하여 관광 수요 유인에 나설 계획

4.11 강릉시,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

- 4.11일 강릉시 경포 일대의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 27명(사망 1명), 재산피해 약 398억원, 주택 178채 소실 등이 발생*하였으며, 이에 정부는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**으로 지정(4.12일)

* 4.11~17일에 실시된 1차 피해조사 결과 기준

** 5월중 복구 관련 예산편성 및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복구비의 70%를 국비로 지원

- 금번 산불은 강릉시의 대표 관광 명소인 경포 일대에서 발생하여 사유시설의 피해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(전체 피해액의 84%)

— 전체 재산피해 규모는 지난 2019년 3일 동안 지속된 강릉·고성 등 동해안 산불(1,301억원)의 30% 수준이나, 사유시설 피해액(333억원)은 약 30억원 더 컸음

- 관광지에 집중된 산불피해로 인해 숙박업 등 관광업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, 강원도 등은 관광 활성화를 포함한 경기진작 대책을 마련
 - 강원도는 '가자! 동해안으로!' 캠페인 등을 통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,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(총 200억원) 등 자금지원 대책도 발표
 - 한국은행(강릉본부)은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 하순부터 100억원 한도(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0억원)에서 금융 중개지원대출을 지원

4.21 강원도,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주력업종 선정

- 강원도는 일자리 창출 및 도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각 시·군별 주력업종*을 고시하였으며, 업종별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14개 시·군)이 가장 많이 선정
 - * 지난 2월 「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이 개정되면서 개별 시·군의 산업분포, 기업육성 정책 등을 바탕으로 선정된 주력업종(시·군별 5개 이하)에 대한 특별지원 항목이 신설
 - 주력업종 특별지원으로 해당 기업들은 기존 비율보다 5%p가 늘어난 투자보조금*을 받게 되며, 소규모 창업기업**도 지원대상에 포함
 - *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자금 등
 - ** 기존에는 중·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지원 기준이 있었으나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기준이 신설
 - 강원도는 주력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 동력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